

김정일 사망 관련 긴급 여론조사 보고서

김지윤
강충구



김지윤 박사는 현재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및 여론연구실장으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박사후 연구원이었고, 미국 컨코디아 대학 및 연세대 국제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 성향 분석의 문제점 : 임의번호걸기와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교』 (조사연구, 2011),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분배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10),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 (Electoral Studies, 2010) 및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 (Political studies, 2010) 등이 있다.

강충구는 현재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실 연구원으로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로 정치사회 조사 및 양적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화 문화아카데미의 '정책소통지수 개발연구'에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주요 연구실적은 『한국언론학보』와 『가족과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기획배경

아산정책연구원은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 이후 대북·안보 이슈 및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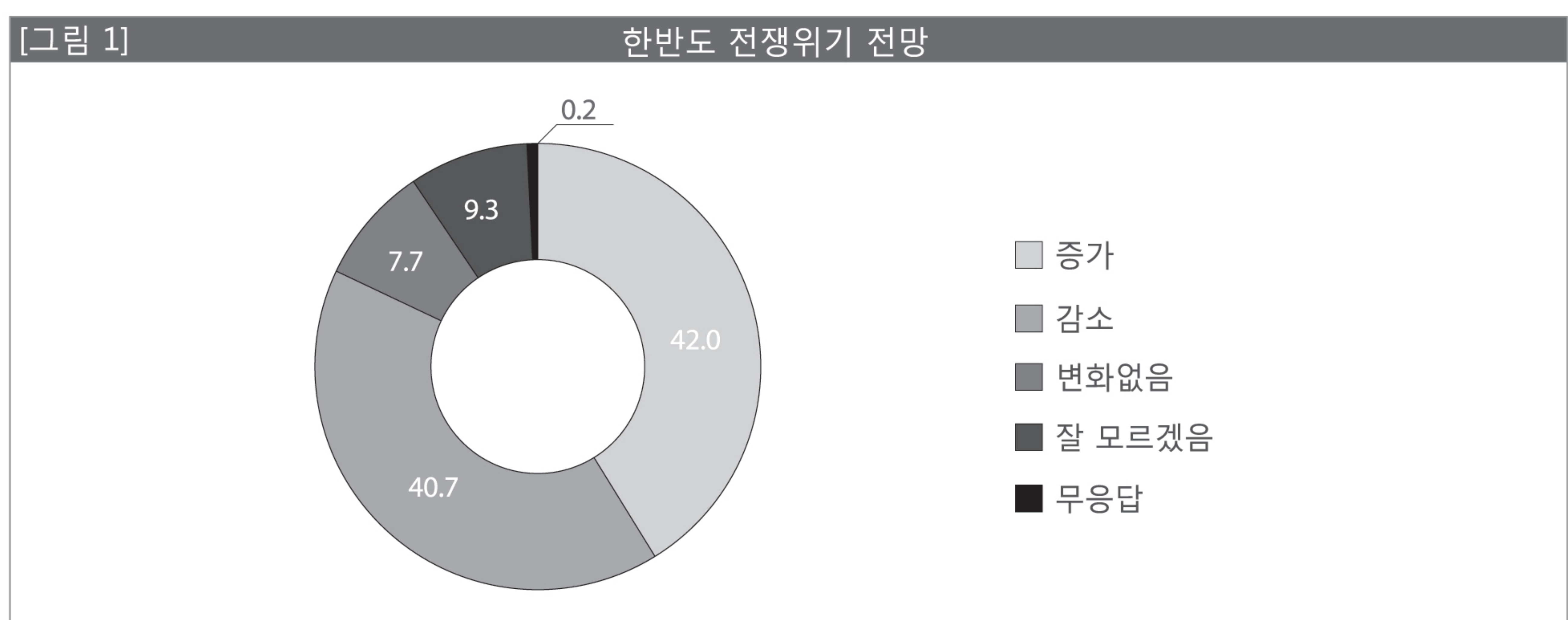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는 김정일 사후 한반도 전쟁위기와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전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국가 등의 안보 이슈와 관련된 한국인들의 인식을 살펴봤다. 그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지지정당 및 차기 대선 지지후보, 안보 위기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차기 대선 후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문항들은 그 동안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월례조사와 지난해 TV조선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 사망 전후 한국사회 주요 정치, 사회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김정일 사망 관련 긴급 여론조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된 2011년 12월 19일(월)에 기획되었고, 이후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3.1\%$ 였고, 표본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자료는 2010년 12월 31일 통계청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가중치를 주어 사후 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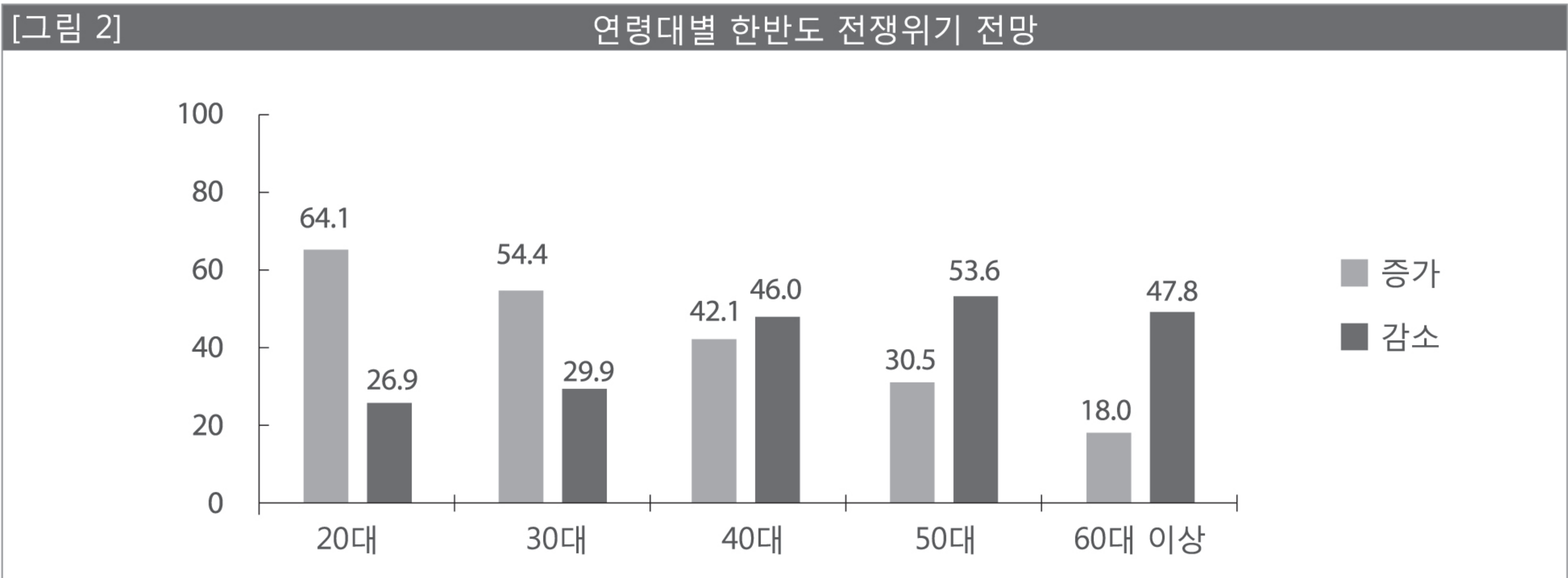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1) 김정일 사망 이후 대북 안보이슈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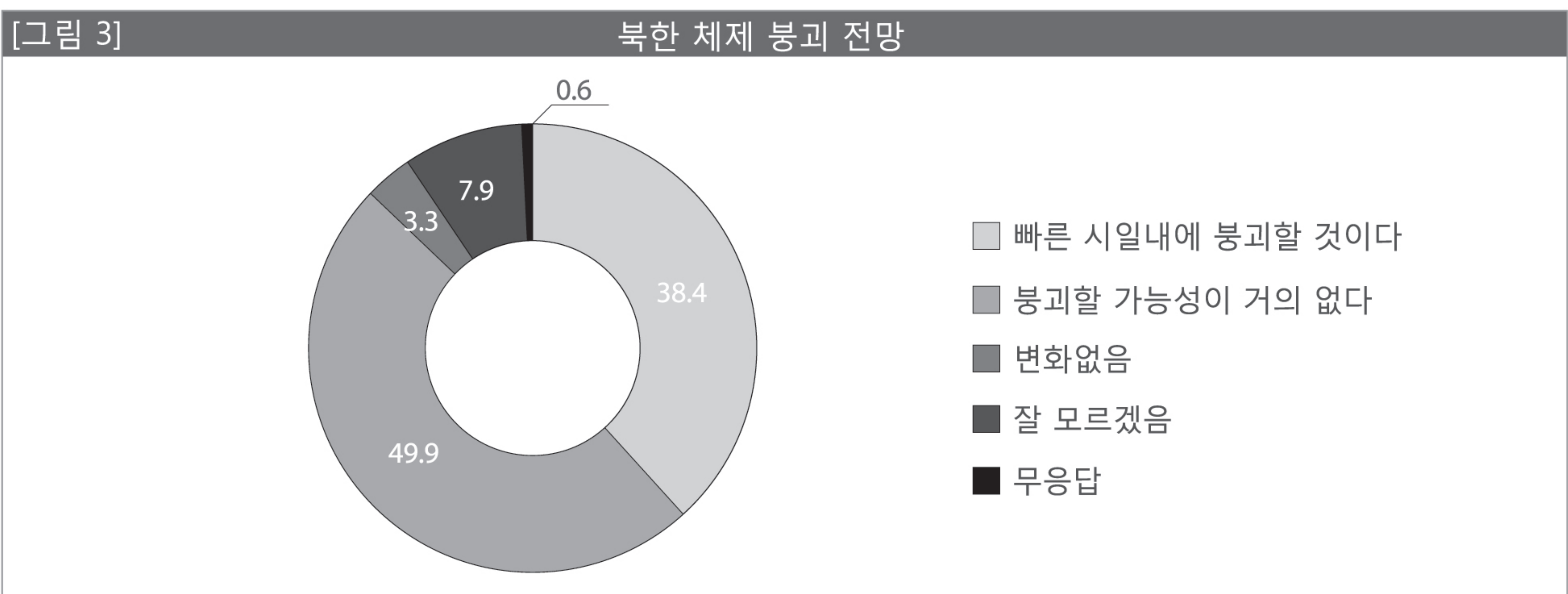
김정일의 사망이 한반도에 가져올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비율(42%)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비율(40.7%)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한국인들의 위기의식은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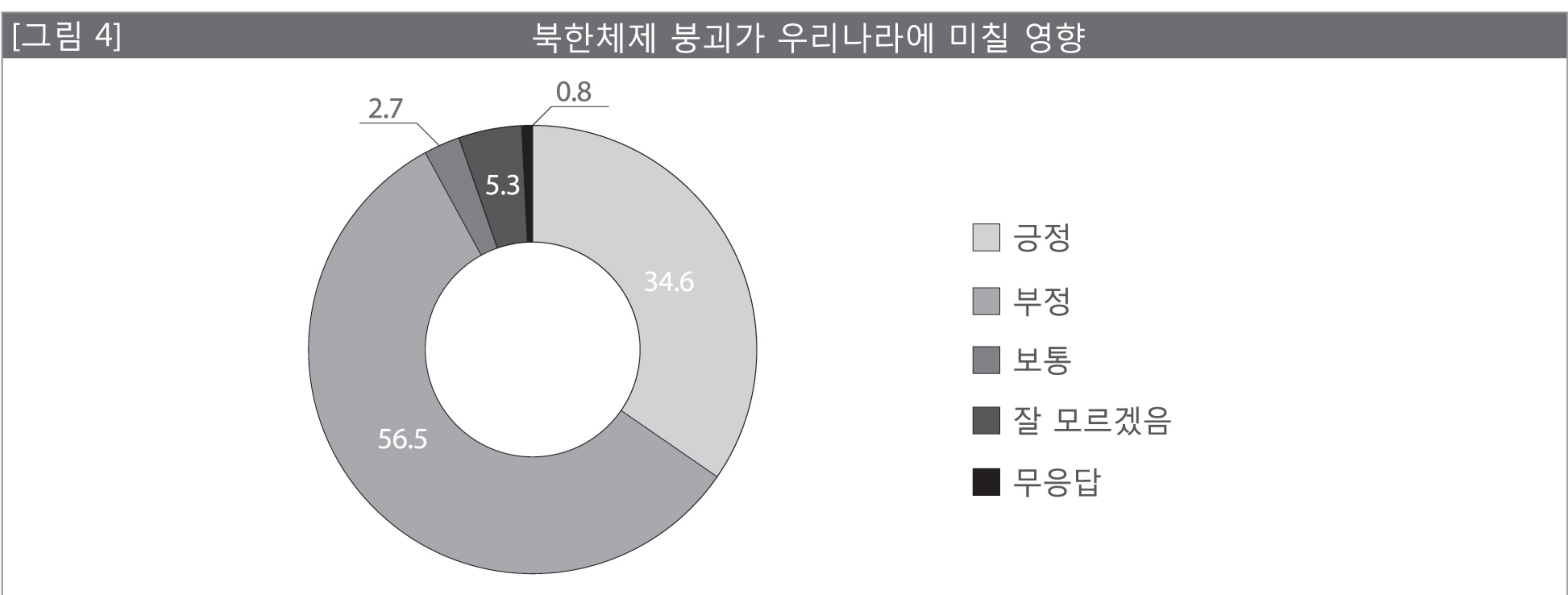
한반도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전쟁 위기가 감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학력이 낮거나 한나라당을 지지할수록 향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가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54.7%).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북한 체제가 빠른 시일 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4%에 불과했다. 오히려 향후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49.9%로 절반에 가까웠다. 최근 동아일보에서도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다.¹ 보도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56.4%가 중국의 지원 등에 힘입어 북한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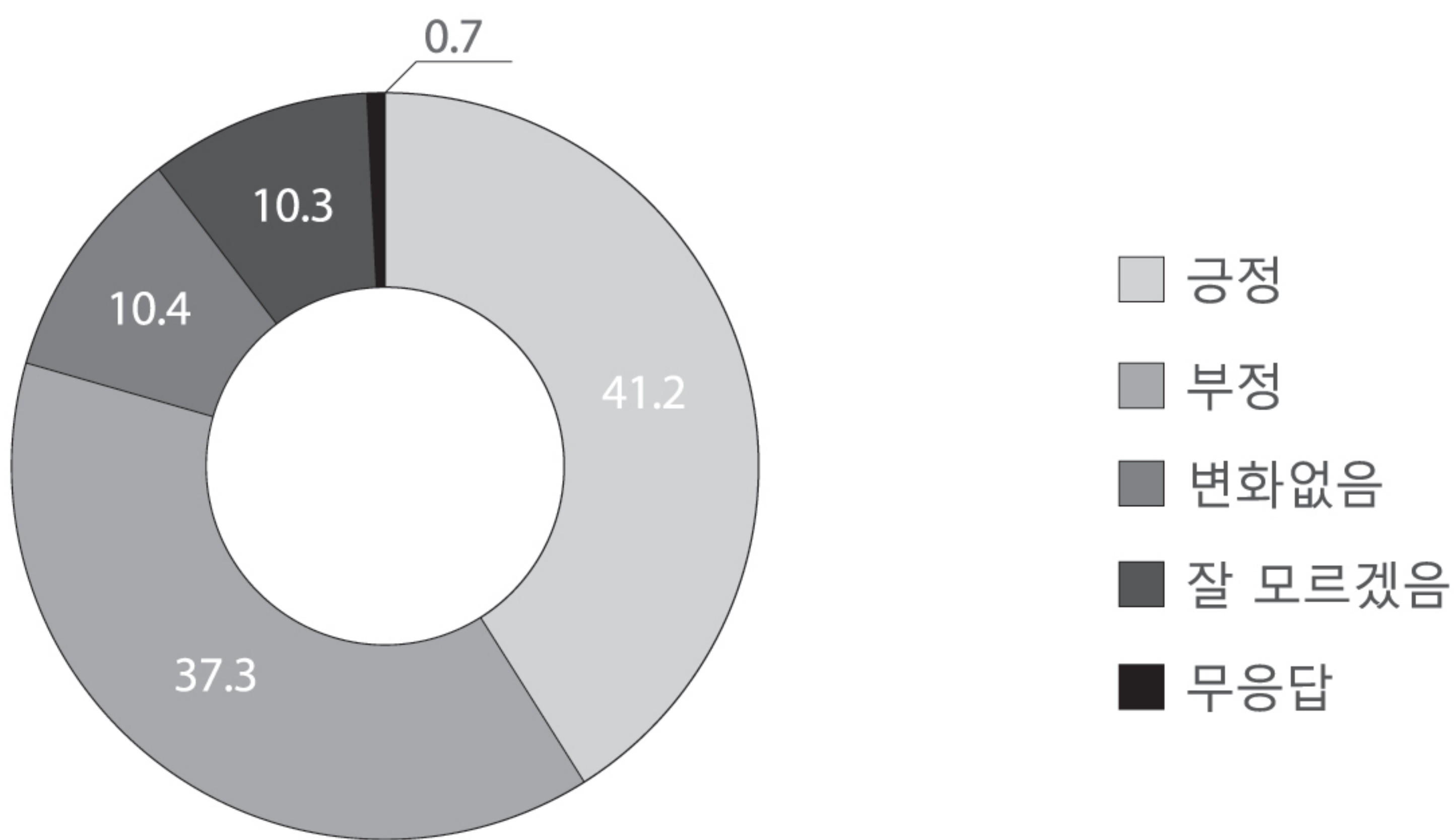


만일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5%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그림 4> 참조). 연령대가 낮을수록 북한의 체제 붕괴가 한반도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고학력자일수록 북한 체제의 붕괴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고졸: 50.7%, 전문대 재학이상: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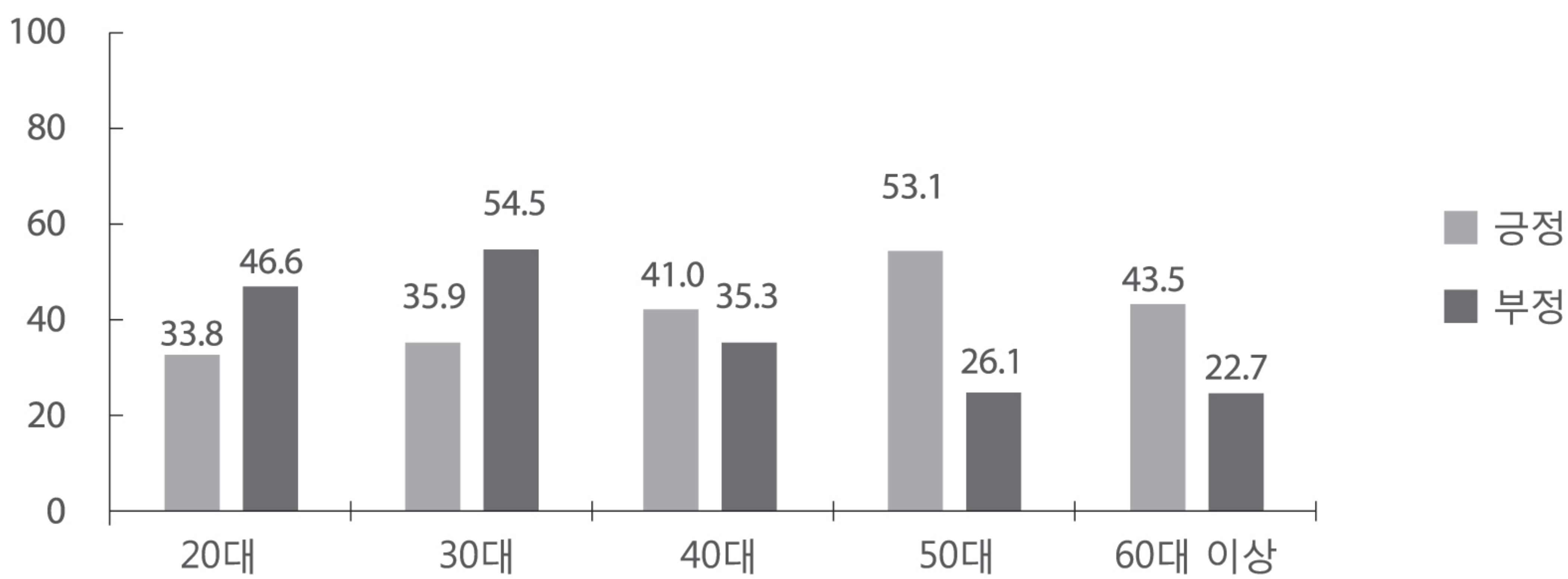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낙관론(41.2%)과 비관론(37.3%)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한나라당 지지자일수록 김정일 사망 이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즉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일수록 김정일 사망이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5]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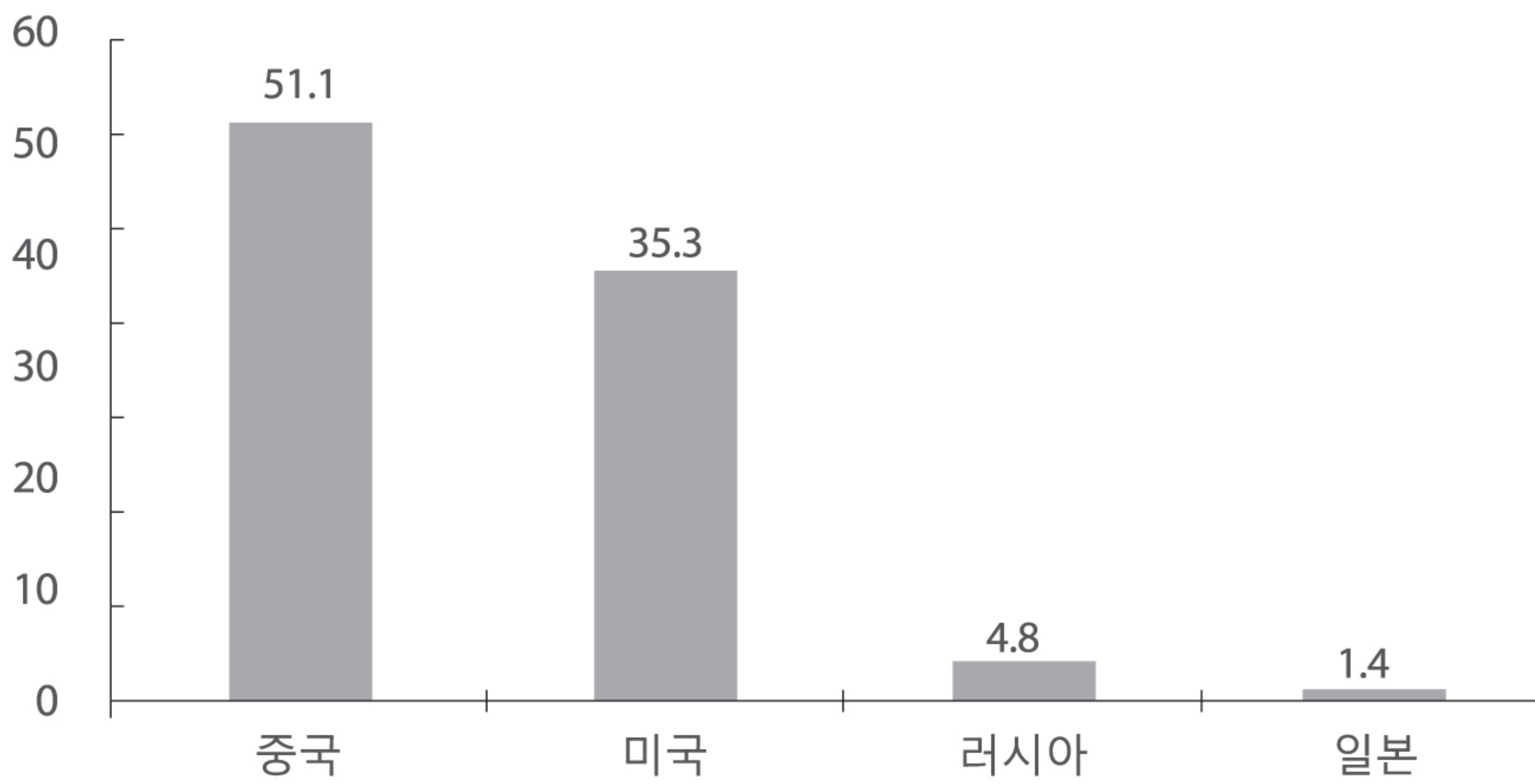


[그림 6] 연령대별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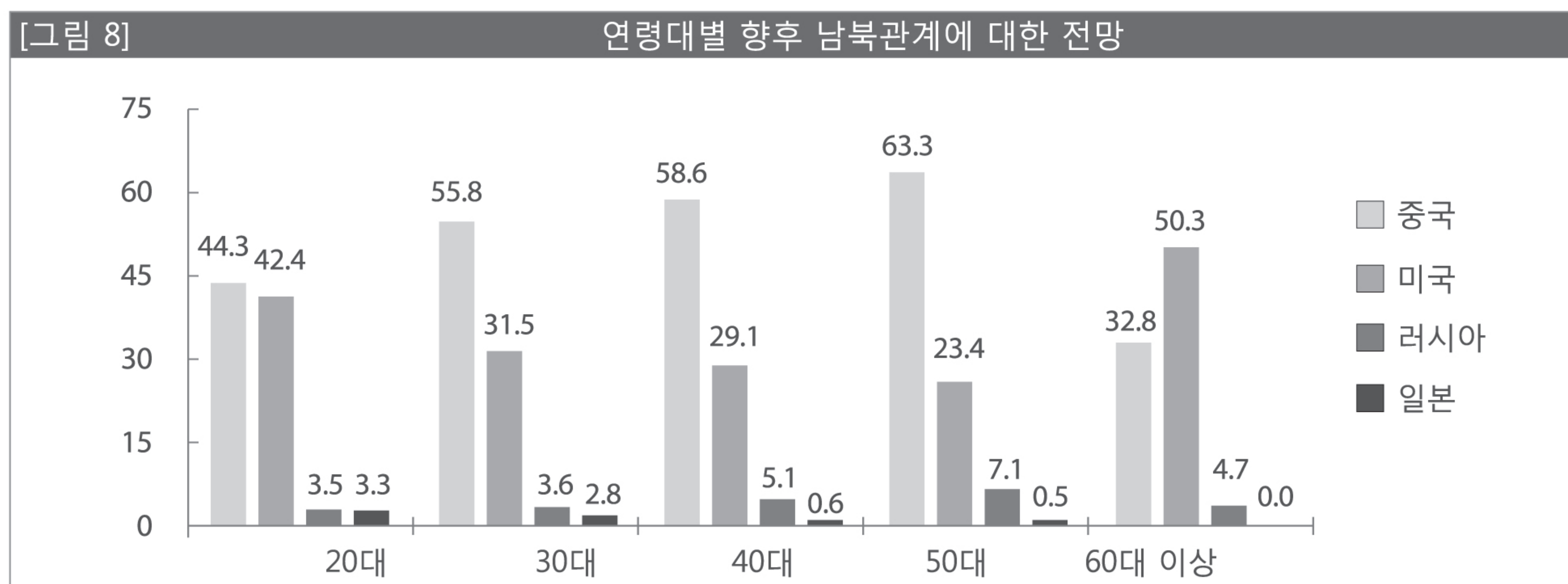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할 주변국으로는 51.1%가 중국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국가로 그 동안 대북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파트너였던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다. 이 결과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북한의 권력이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다음으로 협력해야 할 주변국은 미국(35.3%), 러시아(4.8%), 일본(1.4%) 순이었다.

[그림 7]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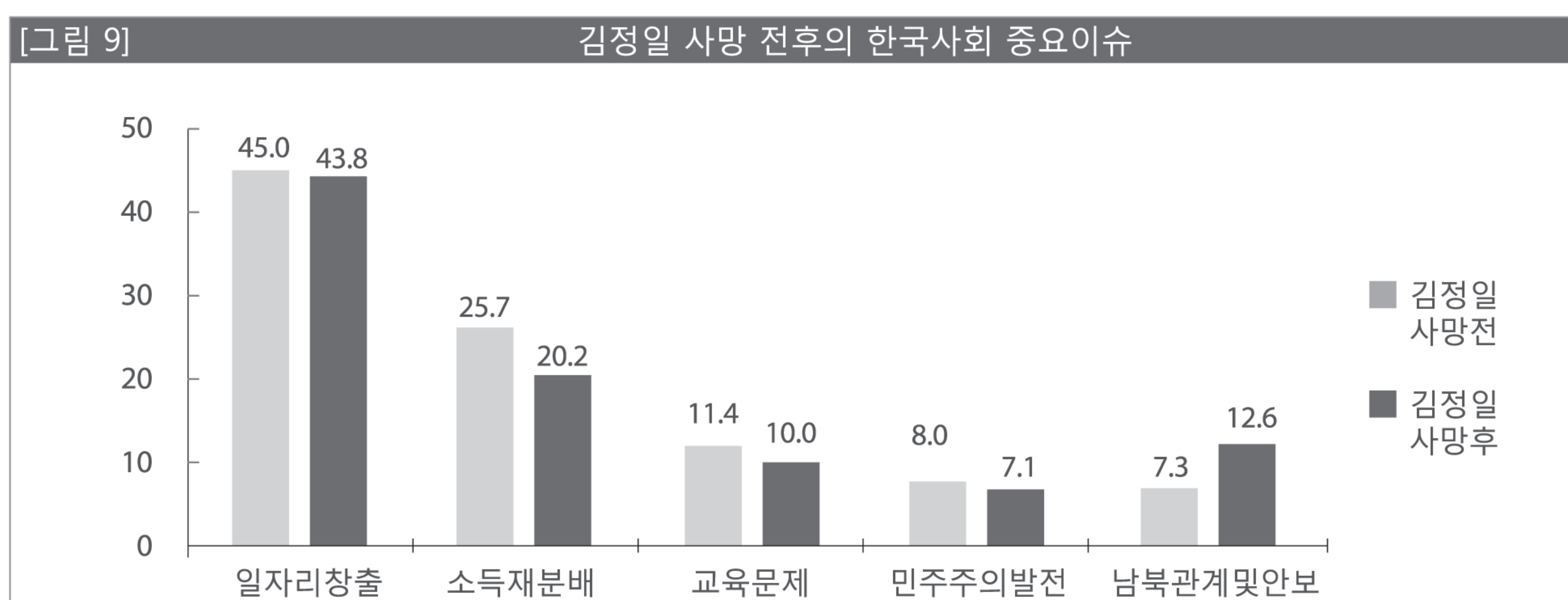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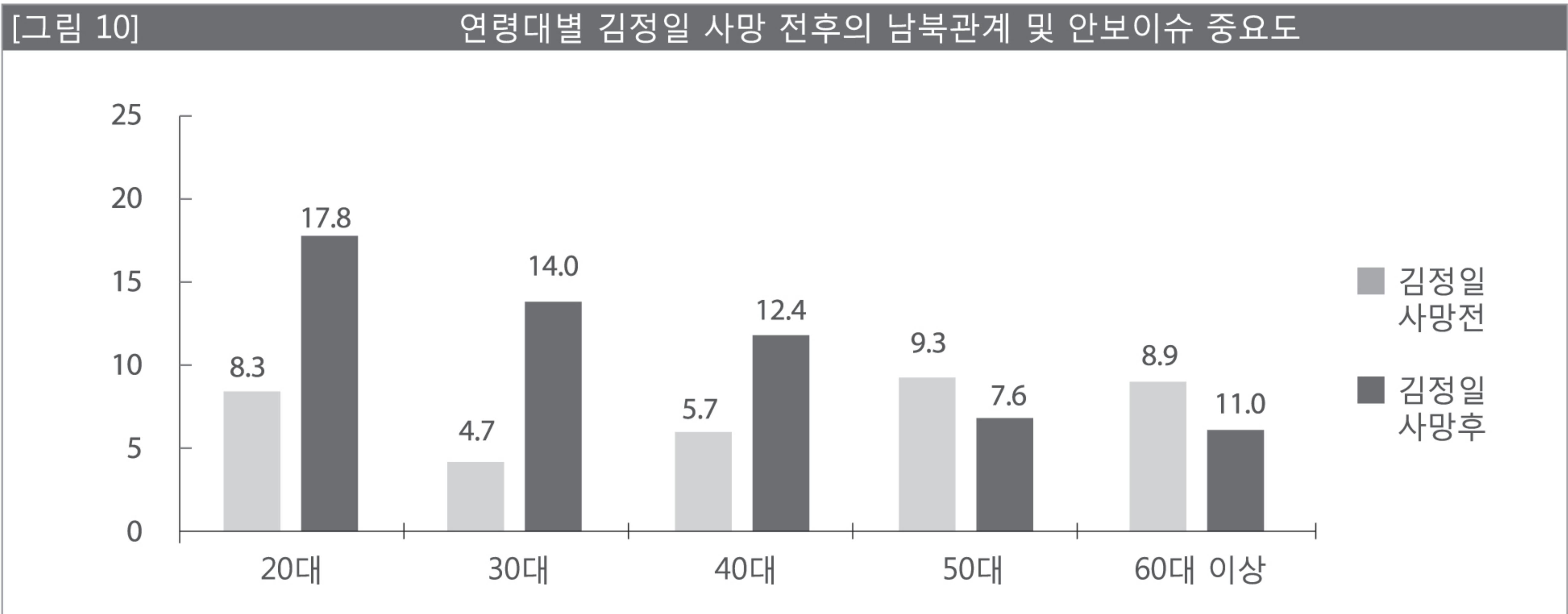
이 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에서는 세대간 간극이 두드러졌다.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50% 이상이 가장 중요한 협력국으로 미국을 선택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5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응답자가 중국을 선택했다(<그림 8> 참조).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미국보다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지지정당에 따라서도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국가를 다르게 선택했다. 민주통합당 지지자와 무당파의 경우, 중국(민주통합당: 51%, 무당파: 53.4%)을 선택한 비율이 미국(민주통합당: 36.0%, 무당파: 32.0%)을 선택한 비율보다 15%이상 높았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는 중국(43.9%)을 선택한 비율과 미국(44.1%)을 선택한 비율이 비슷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수 성향이 짙은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중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꼽은 응답자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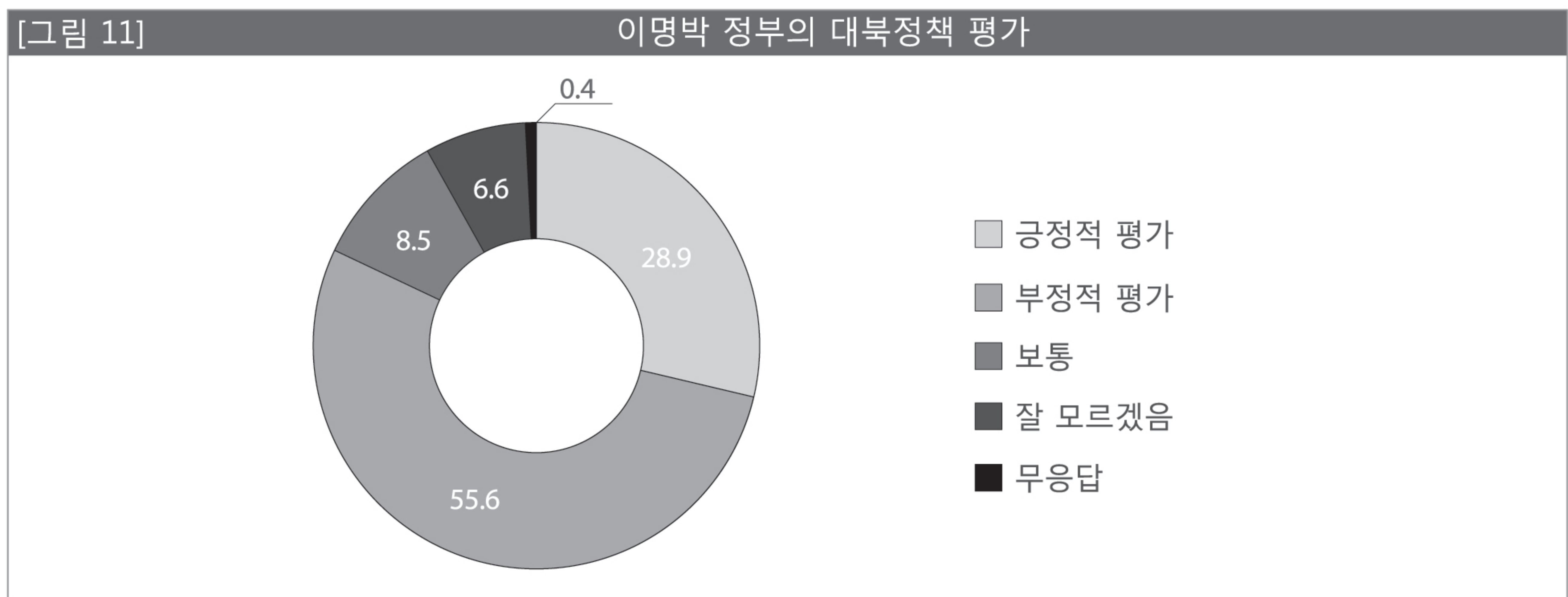
2) 대북이슈와 정책에 대한 태도

남북관계 및 안보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김정일 사후 일주일 사이에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의 12월 월례조사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 이전에 한국사회의 중요 이슈는 일자리 창출(45%), 소득 재분배(25.7%), 교육문제(11.4%)의 순이었다. 남북관계 및 안보를 중요 이슈로 선택한 비율은 7.3%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이보다 5%정도 높은 12.6%가 남북관계 및 안보를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했다. 특히, 20~4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의 태도변화가 뚜렷했다. 김정일 사망 이전에 남북관계 및 안보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택한 20~30대는 각각 8.3%, 4.7%에 불과했으나,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17.8%, 14%로 크게 증가했다. 평소 남북관계 및 안보 이슈에 대해 무관심했던 20~40대가 '김정일 사망'이라는 안보위기 사태를 경험하면서 남북관계 및 안보 이슈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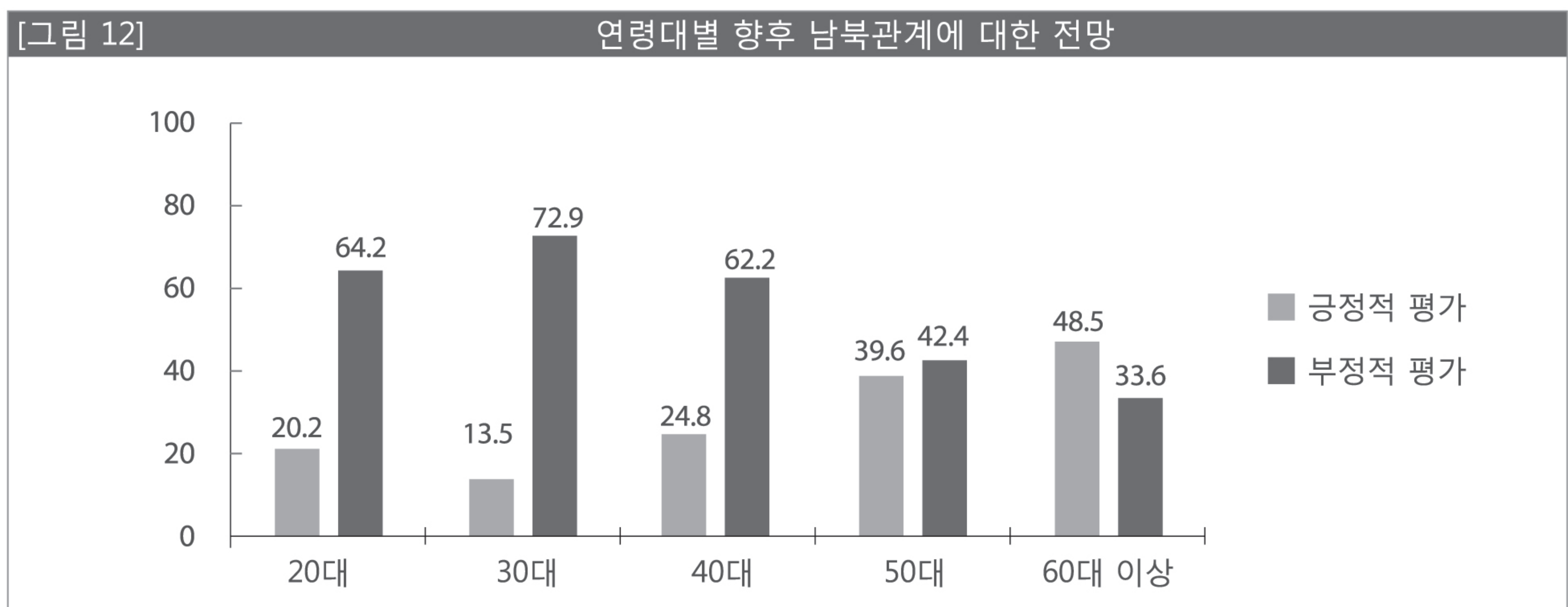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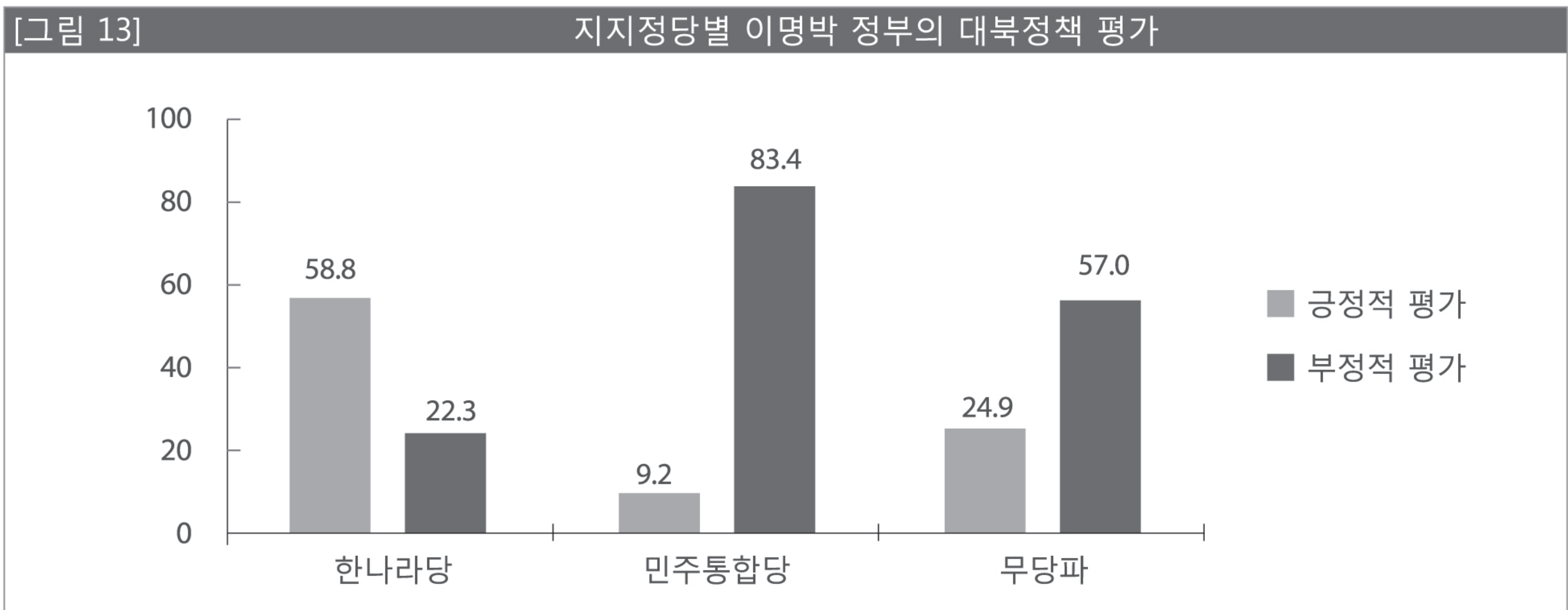


김정일 사망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5.6%로 긍정적 평가(28.9%)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40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20대: 64.2%, 30대: 72.9%, 40대: 62.2%). 지지정당에 따라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58.8%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83.4%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파의 경우, 부정적 평가를 내린 비율(57%)이 긍정적 평가(24.9%)를 내린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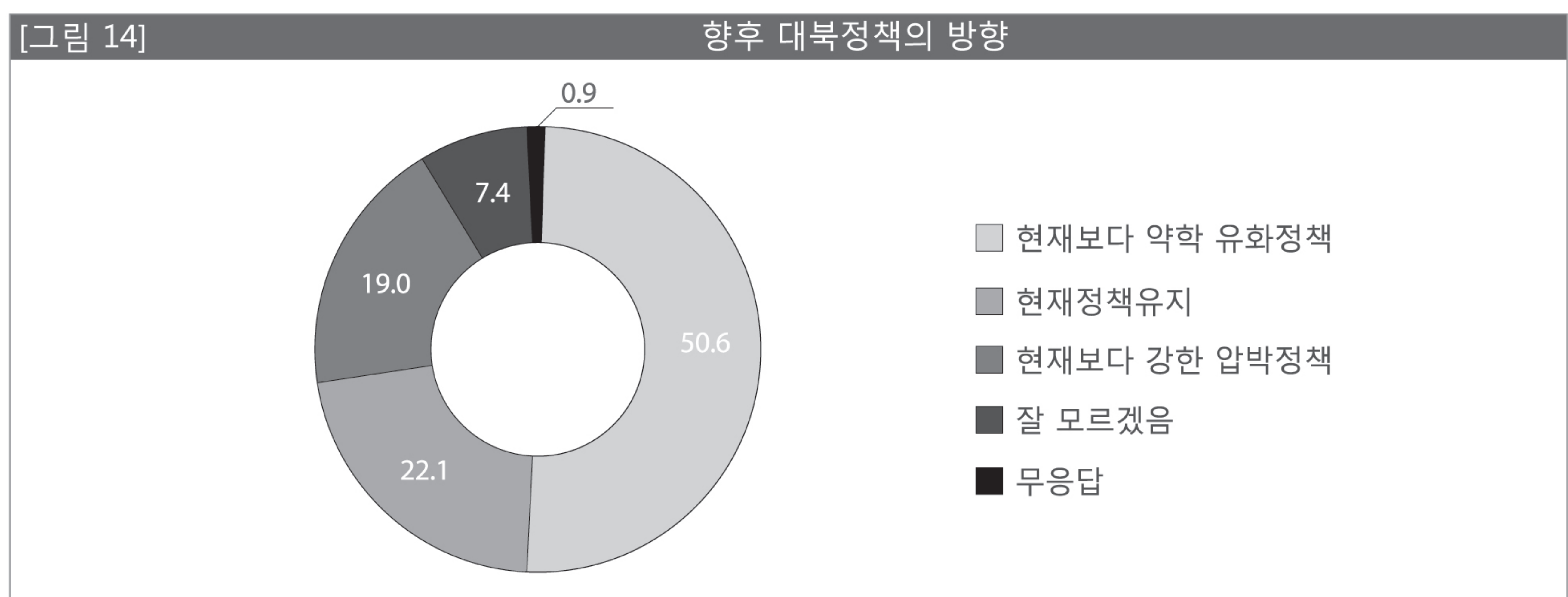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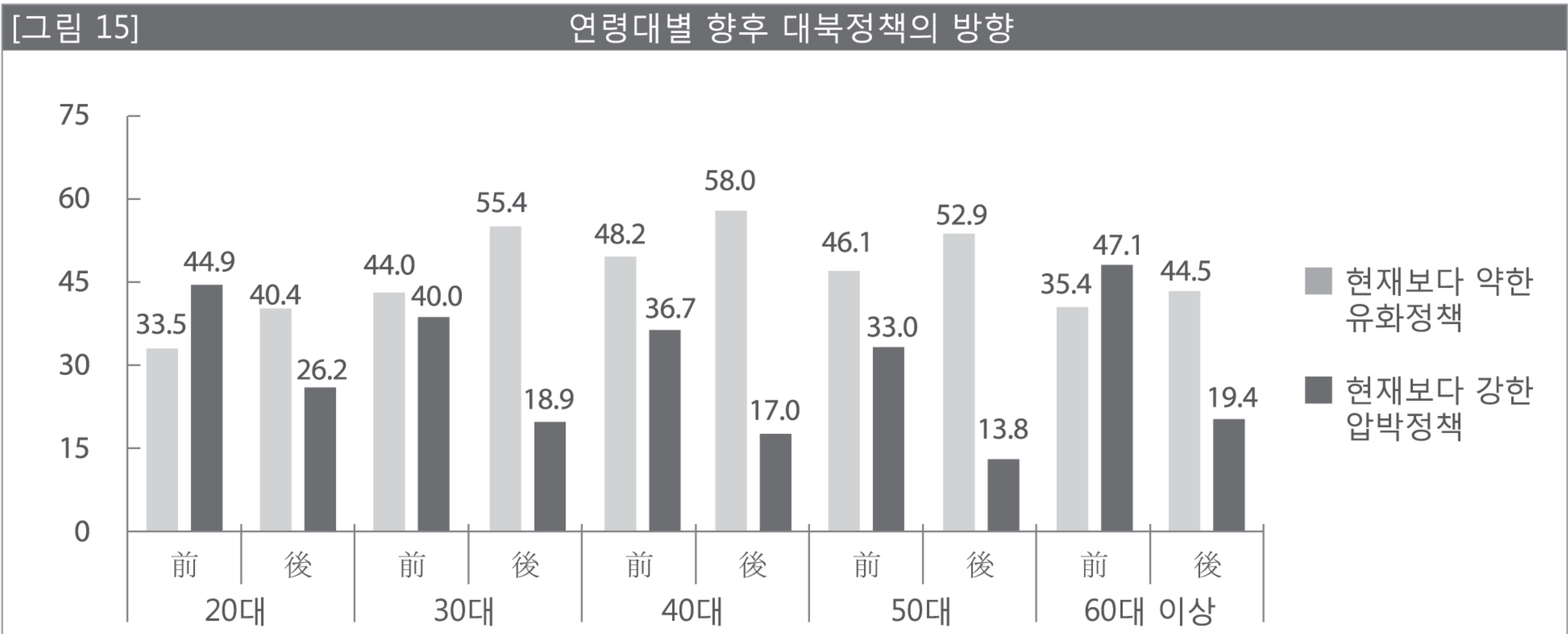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의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6%로 절반을 넘었다. 현재의 강경정책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더 강한 압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2.1%, 19%로 비교적 낮았다. 지난해 11월 아산정책연구원이 TV조선과 기획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강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41.6%, 40.3%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²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달라진 데에는 김정일의 사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11월 TV조선 기획조사를 실시한 이후 12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김정일의 사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대북관련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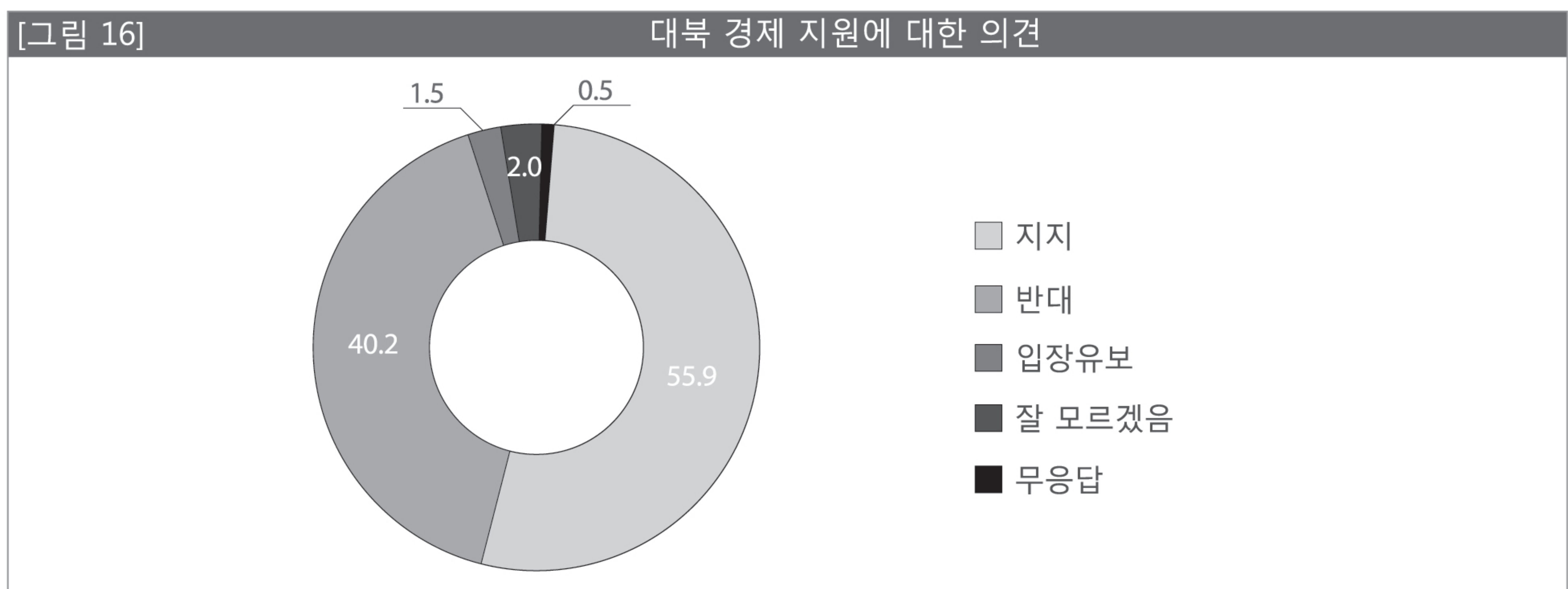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연령대나 학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연령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대북강경노선에서 유화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지지정당에 따라서는 유화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달랐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 36.4%만이 유화정책을 선호한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는 61.4%가 유화정책을 선호했다. 무당파의 유화정책 선호도는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선호도와 비슷했다.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달리, 북한에 식량이나 비료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는 분명한 선호가 드러나지 않았다. 대북 경제지원을 지지하는 의견이 55.9%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넘었지만, 반대하는 의견 역시 40.2%로 높은 편이었다.



대북 경제 지원을 가장 많이 지지한 연령대는 30~40대였다(각각 62.1%, 67.5%). 2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대북 경제적 지원에 반대하는 비율(20대: 50.2%, 60대 이상: 48.2%)이 지지하는 비율(20대: 47.2%, 60대 이상: 42.7%)보다 다소 높았다. 특이한 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한 20대와 60대 이상이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두 연령대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현 대북정책보다 한층 수위 높은 강경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김정일 사망 이전에 실시된 TV조선 기획조사에 따르면, 대북정책의 방향이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보다 좀 더 강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20대(44.9%)와 60대 이상(4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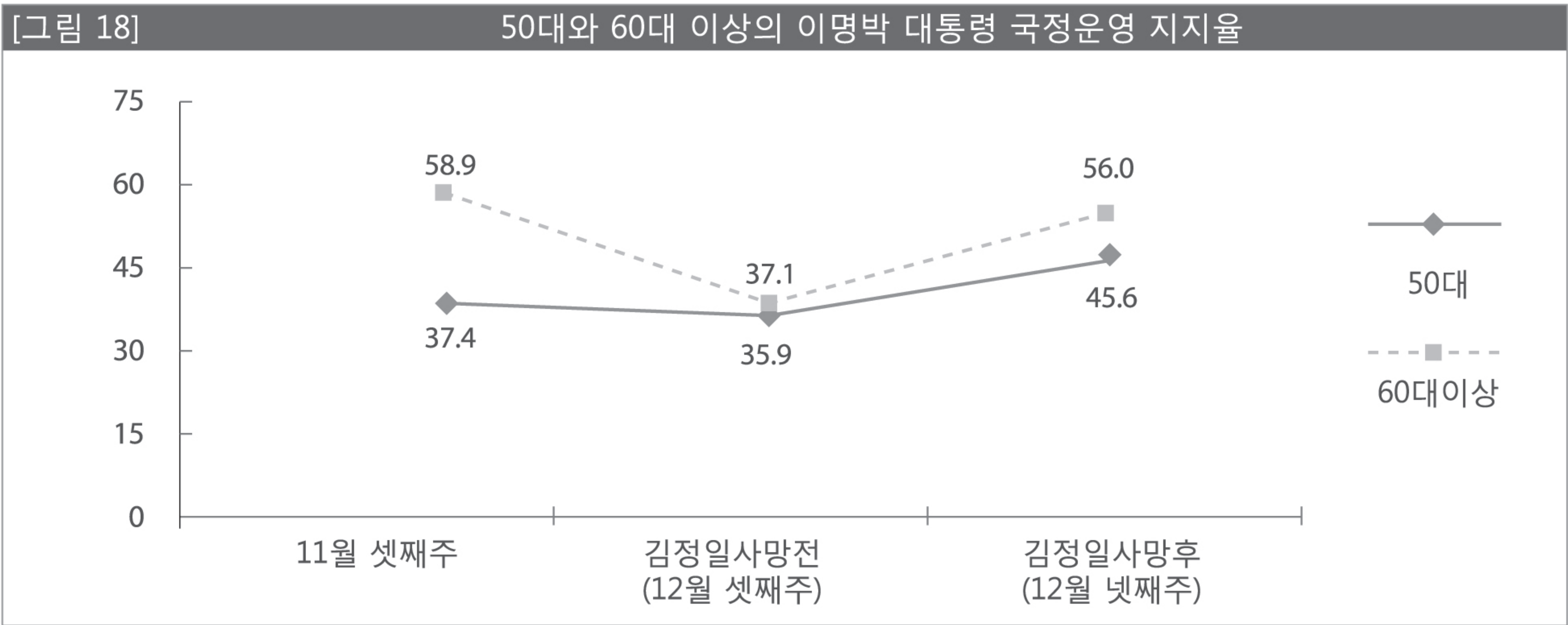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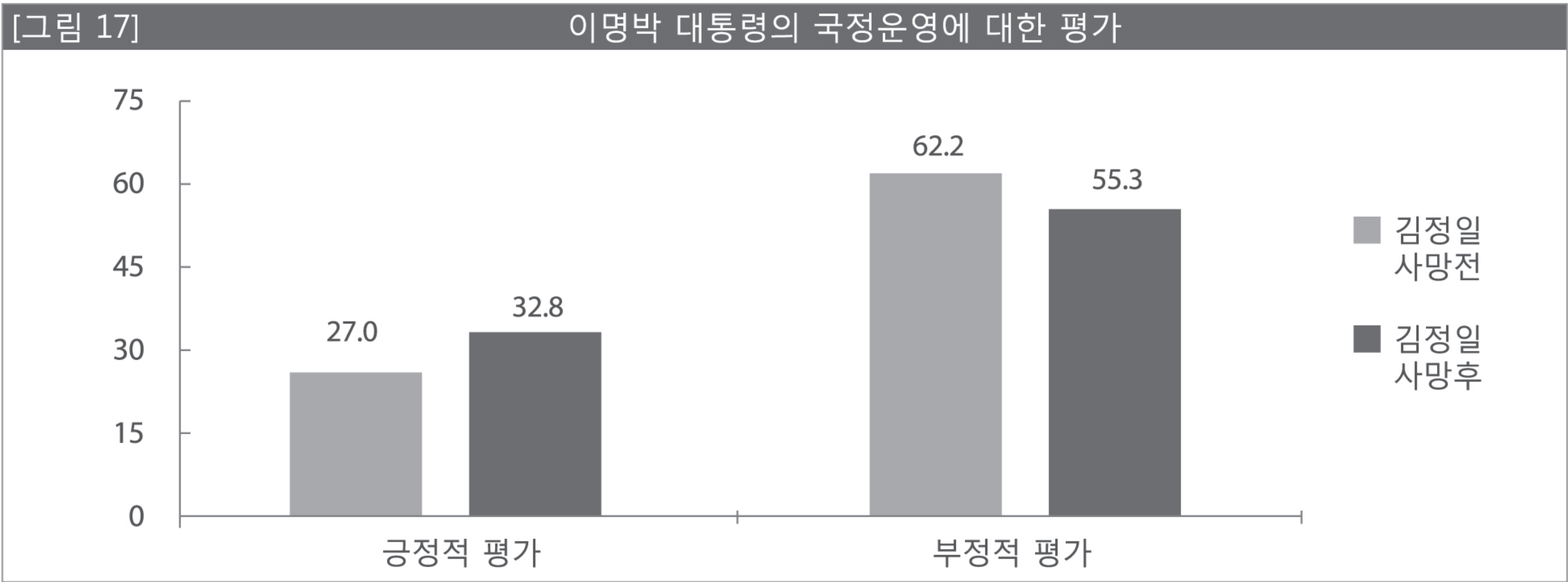
3) 김정일 사망과 국내 정국 평가

(1)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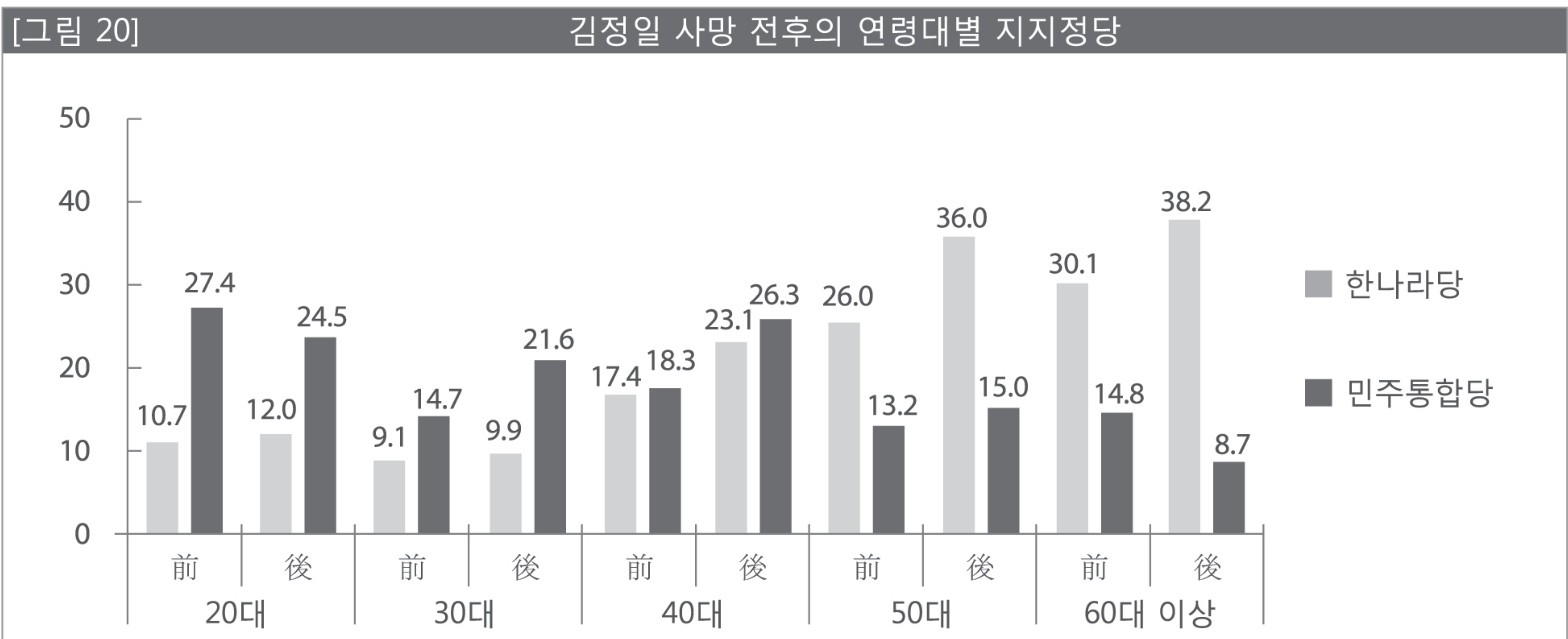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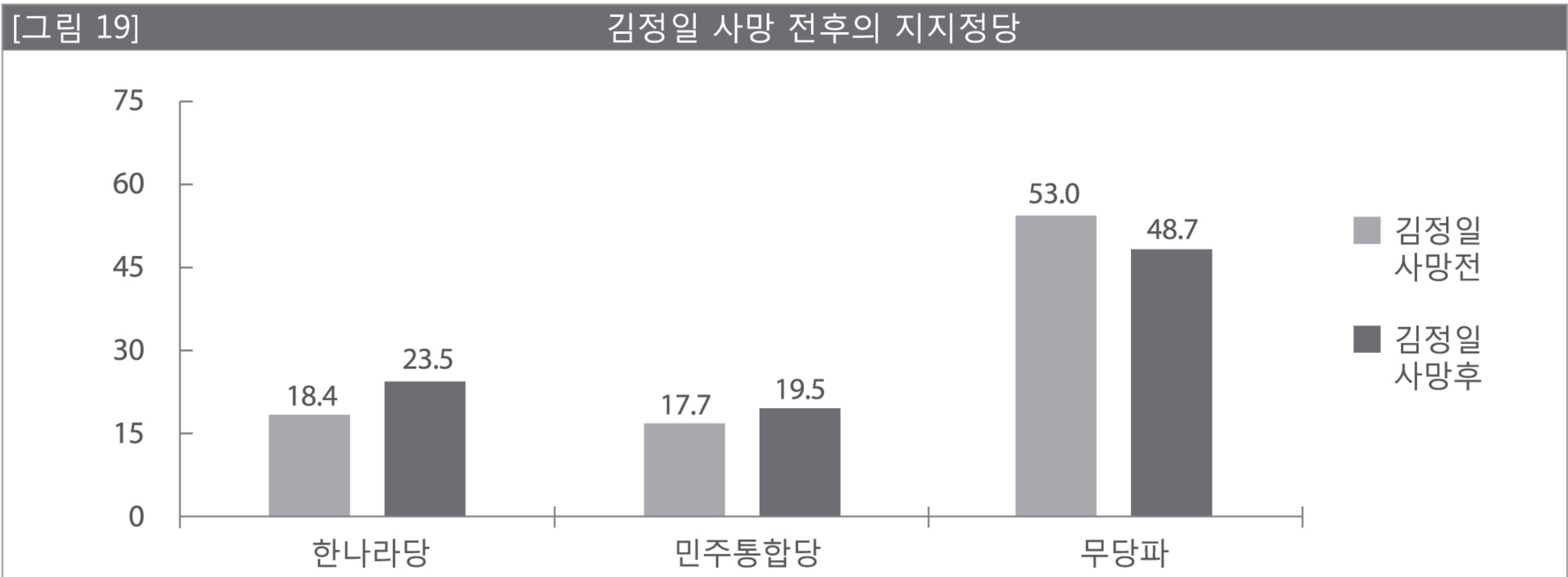
김정일 사망을 기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증가했다. 김정일 사망 이전에 27%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김정일 사망 직후 32.8%로 상승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월례조사를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정권 말기에 가까워지면서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3개월 동안 국정운영 지지율 변화가 10% 이내였던 점을 감안하면, 김정일 사망을 전후로 일주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8%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³

김정일 사망 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상승은 50대와 60대 이상의 지지에 의한 것이었다. 아래의 <그림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11월 월례조사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각각 37.4%, 58.9%였고, 12월 조사에서는 각각 35.9%, 37.1%로 감소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각각 45.6%, 56%로 급상승했다. 이는 대북, 안보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은 보수 성향의 50대와 60대 이상이 김정일의 사망을 계기로 결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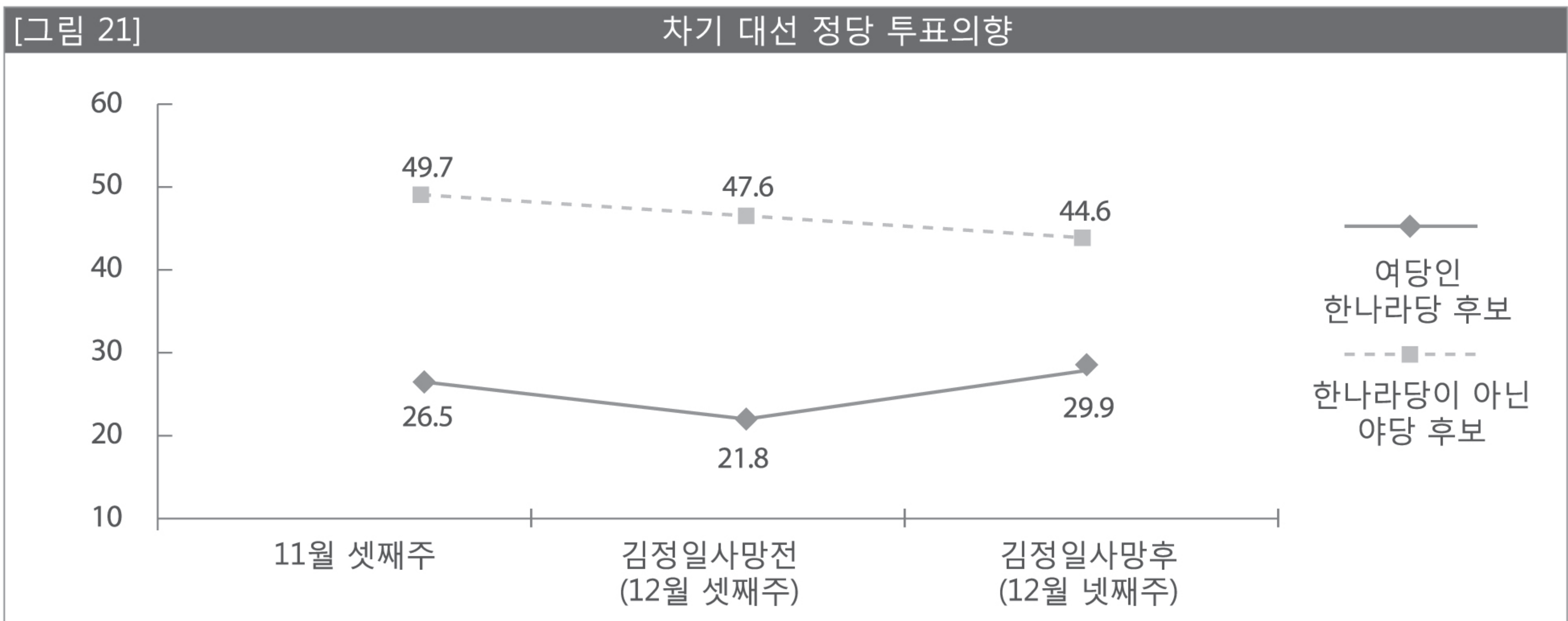


김정일 사망 이후 여론의 변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도에서도 발견되었다. 김정일 사망을 전후로 무당파는 53%에서 48.7%로 감소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증가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12월 월례조사의 18.4%에서 23.5%로 약 5.1% 증가했고,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17.7%에서 19.5%로 증가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이유는 그 동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실망해왔던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김정일 사망이라는 대북이슈에 의해 다시 결집했기 때문이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김정일 사망 일주일 전에 있었던 12월 월례조사에서 50대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26% 였지만 김정일 사후 36%로 약 10%가 증가했고, 60대 이상의 경우 30.1%에서 38.2%로 약 8.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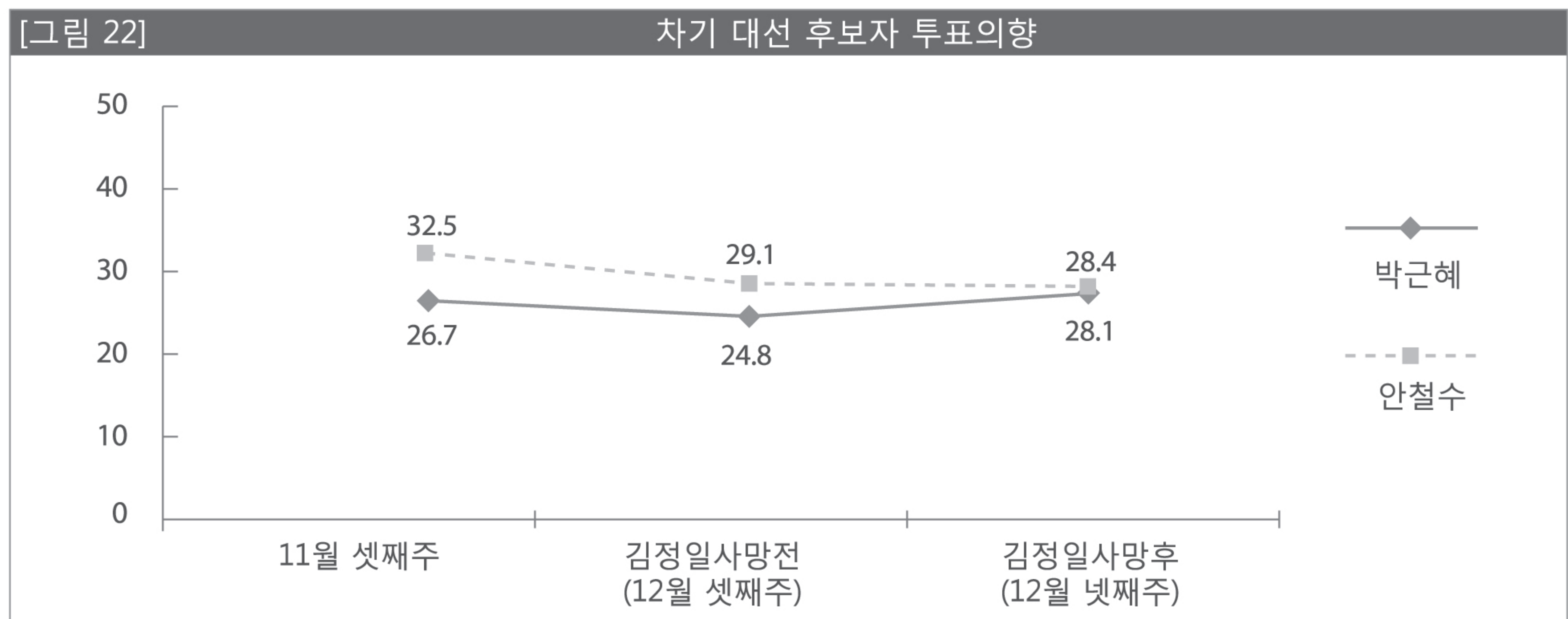


(2) 차기 대선 투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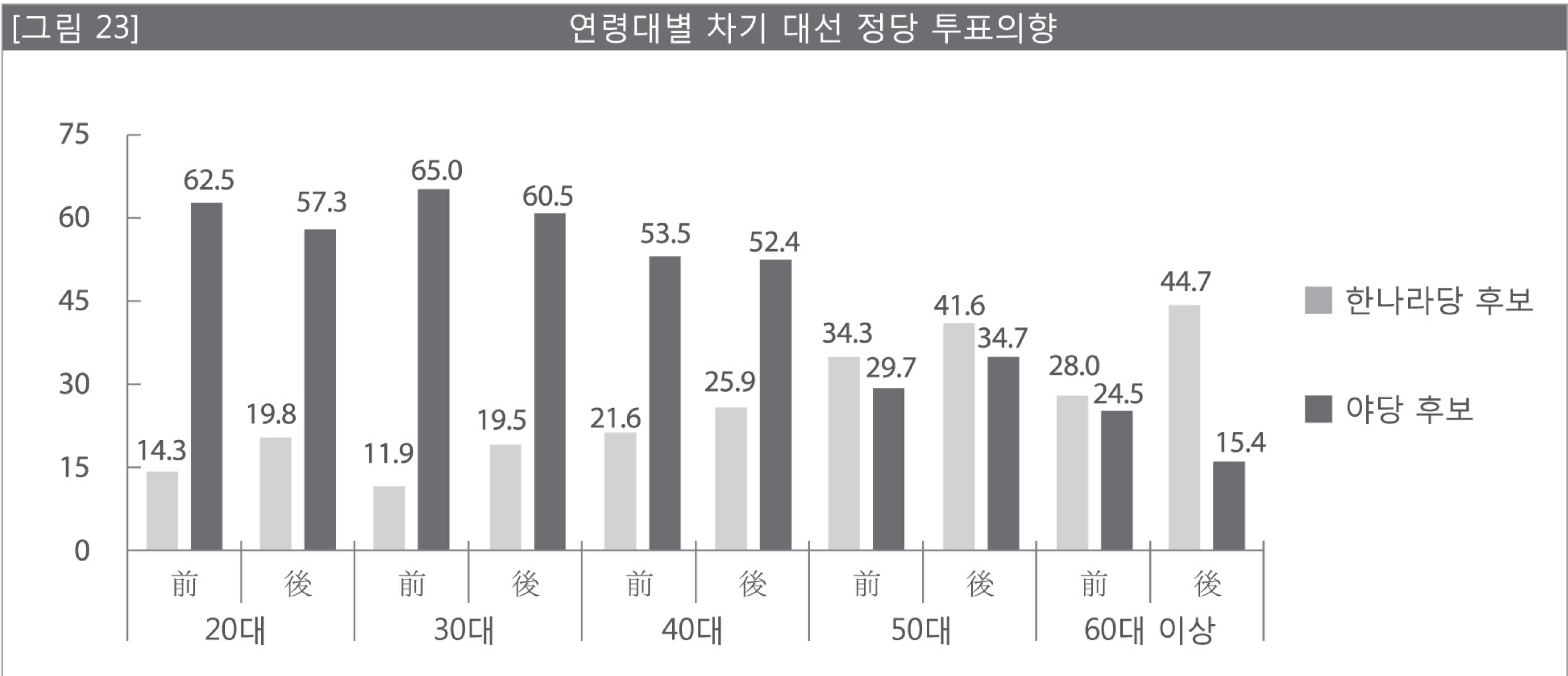
김정일 사망 발표 직후에 실시된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7.6%의 한국인들은 김정일 사망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⁴ 그러나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번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김정일 사망 이후에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와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선호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의 차기 대선 투표의향을 2011년 11월부터 추적해보면,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은 11월 26.5%에서 12월에는 21.8%까지 감소했다가, 김정일 사망 이후에 29.9%로 급증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아닌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한나라당이 다른 정당보다 안보이슈에 잘 대응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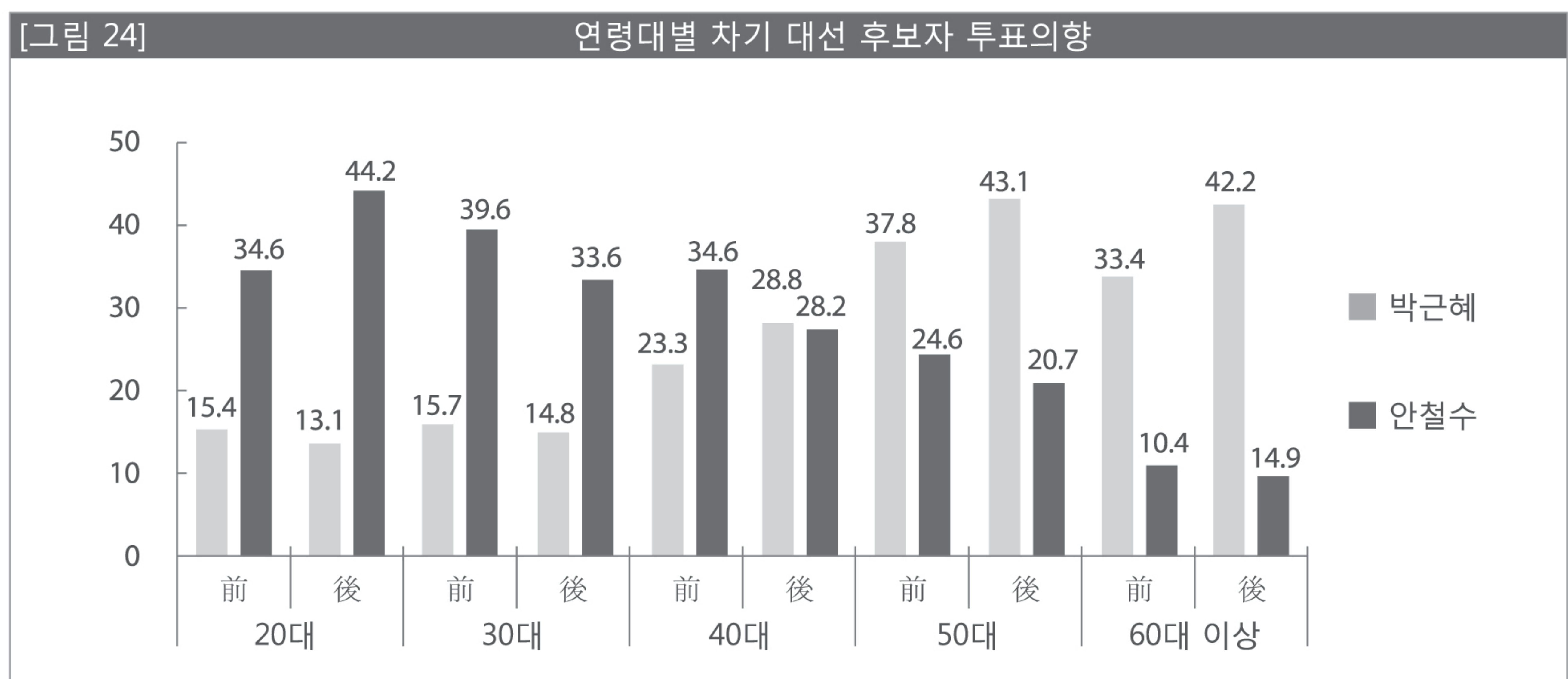
다자 후보 구도로 차기 대선에 대한 투표의향을 측정한 결과, 11월(안철수: 32.5% vs. 박근혜: 26.7%)부터 12월 김정일 사망 이전(안철수: 29.1% vs. 박근혜: 24.8%)까지는 안철수 교수가 박근혜 위원장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안철수 교수와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차기 대선 투표의향이 각각 28.4%, 28.1%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아래의 <그림 23>, <그림 24>는 차기 대선 투표의향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와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증가했고, 야당 후보와 안철수 교수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감소했다. 특히, 김정일 사망을 전후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선호는 60대 이상의 유권자 사이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은 김정일 사망 이전 28%에서 김정일 사망 이후 44.7%로 그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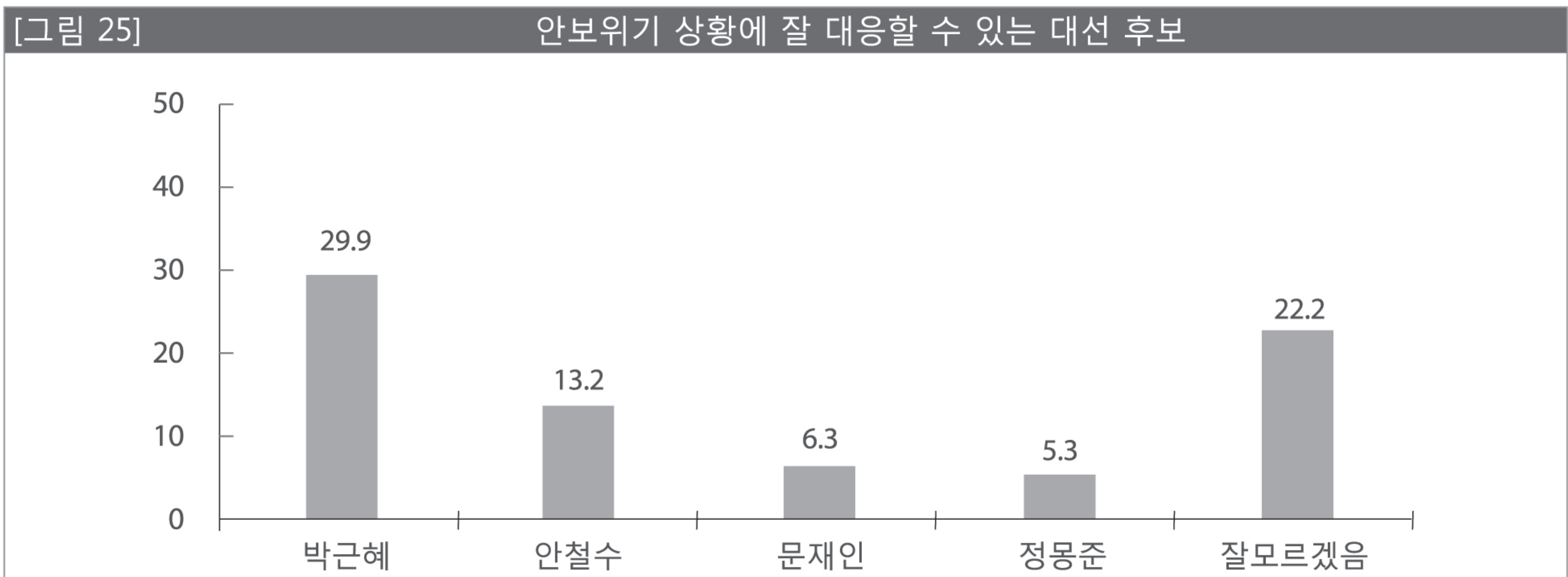
김정일 사망 이후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 역시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김정일 사망 이전의 33.4%에서 42.2%로 약 9%가량 상승했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고연령층의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재결집하면서 차기 대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 박근혜 위원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비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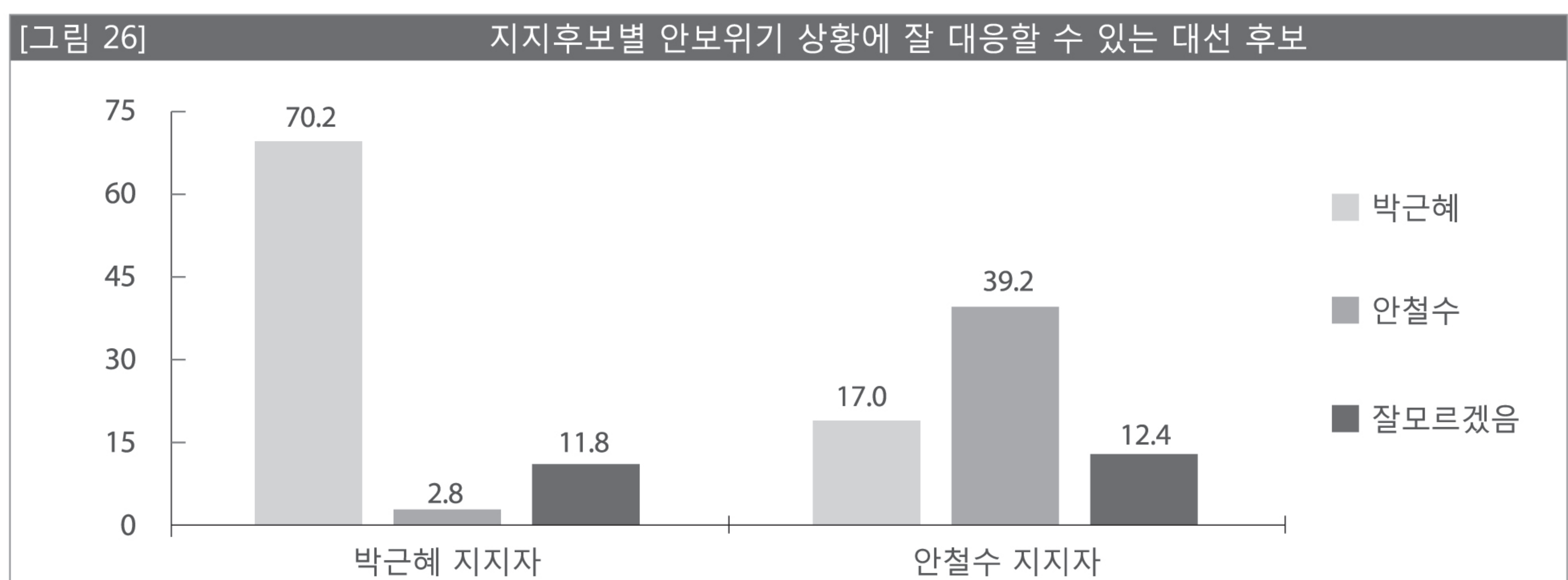
(3) 안보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선 후보

한국인들 중 29.9%는 김정일의 사망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선 후보로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손꼽았다. 차기 대선경쟁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13.2%만이 안보위기에 잘 대응할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몽준 후보를 꼽은 비율은 각각 6.3%, 5.3%였다.

안철수 교수가 안보위기에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박근혜 위원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안철수 교수가 안보 이슈와 관련된 개인적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문항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22.2%라는 점은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안보위기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선 후보로 평가하는 시각은 안철수 교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발견되었다. 안철수 교수 지지자 중 17%가 대선 경쟁후보인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안보 위기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후보로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안철수 교수 지지자들조차도 안철수 교수의 안보 이슈에 대한 역량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일 사망 이후, 박근혜 위원장이 안보 이슈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였음에도 안철수 교수와 차기 대선 경쟁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은 경제 이슈가 안보 이슈보다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또 다음 대선에서 남북관계 및 안보 이슈가 대선의 향방을 결정 짓는 데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하기도 한다.⁵

4. 결론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은 한국사회 전반에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사회에서 잊혀져 가던 남북관계 및 안보이슈의 중요성이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이라는 중대한 대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의 지지율 상승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번 긴급 여론조사 분석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김정일 사망이 곧,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상당수 국민 사이에 퍼져 있었고, 대북이슈의 영향력이 기존 보수층의 한 축인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에 국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정치 스캔들과 한나라당의 내홍을 겪으며, 안보위기 상황에서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결집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이 안보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후보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안철수 교수는 안보 이슈에 있어서 그 능력이나 비전을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여겨지고 있는 안철수 교수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반면, 박근혜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안보와 관련된 대선 후보의 능력이 60대 이상 노년층에 국한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및 안보 이슈 자체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1. 동아일보 (2011년 12월 31일자, "[2012 새해특집] 北 김정은 시대 남북관계... " 도발 사과 엮매이지 말고 관계 개선해야" 53.3%")
 2. TV조선 기획조사는 남북관계 및 안보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어 지난 2011년 11월 21일(월)~23일(수)에 걸쳐 리서치앤리서치에 의해 수행되었다.
 3. 아산정책연구원 (2011년 11월 월례조사 보고서, The Asan Monthly Opinion Survey November 2011), 아산정책연구원의 2011년 11월 월례조사는 11월 15일(화)~17일(목), 12월 월례조사는 12월 13일(화)에 리서치앤리서치에 의해 실시되었다.
 4. 동아일보 (2011년 12월 21일자, "[김정일 사망] 20대 56.5% "北 3대 세습 말도 안돼"... 50대 다음으로 많아")
 5. 동아일보 (2012년 1월 26일자, "[설 민심 여론조사] 문재인 오르고 안철수 뛰는데... 박근혜는?"), 지난 구정연휴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투표 기준으로 후보자의 경제 살리기 능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38.4%로 가장 많았고, 안보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5%에 불과했다.



아산정책연구원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EL: (02)730-5842 FAX: (02)730-5876

www.asaninst.org

